

건축문화 *사랑*

Vol.044 10. JULY 2013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3.07

04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인터뷰_ 사람&issue
전북/건축사사무소 예림 정창석 건축사



인터뷰_ 螢窓雪案
전남/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 정금호 교수

시론 02

전문가와 소통 그리고 건축계의 미래_ 신남수

특별기획 03

2013 광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봄학기 수료식

설계경기 04-05

대한지적공사 무안군지사 사옥건립 설계경기
섬진강수력발전소 사옥 신축 설계경기
골고다 기독교미술관 건축설계경기

新건축 06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 1부_ 문창호

사람 & issue 07

건축사사무소 예림 정창석 건축사와의 인터뷰

친환경 건축 08

휴과 건축 이야기 3부_ 황혜주

螢窓雪案 09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 정금호 교수와의 인터뷰

2013 광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봄학기 수료식



대한지적공사 무안군지사 사옥건립 설계경기
당선작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섬진강수력발전소 사옥 신축 설계경기
당선작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흥근 건축사



골고다 기독교미술관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신남수 명예교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nsshin@jnu.ac.kr

전문가와 소통 그리고 건축계의 미래

누군가가 우리나라 건축계를 ‘삼년 묵은 썩을 7년 찾아다니고 있다’고 비꼬는 말을 듣고 공감한 적이 있다. 아마도 건축계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게다. 그리고 이 힘든 오늘날의 건축계 현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은 아닌가?’하는 회한도 마음속에 깊이 고여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축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 건축계의 앞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의 건축주는 건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선불리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라 할 수는 없으나, 지난 6월 22일에 전남대학교 영명관에서는 작지만 참으로 뜻있는 행사가 있었다.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가 주관한 토요건축학교의 봄학기 수료식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행복을 담는 건축학교’는 초등·중등·고등부 과정으로 나뉘어 10주 동안 진행되는 건축교육 프로그램이며, 서울·부산·광주에서 진행된 바 있다.

흔히들 21세기의 화두로 창의성과 문화 그리고 자기성취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통의 문화’로 귀결되는 것 같다. 대량 소비가 미덕처럼 여겨졌던 시대에는 공급자 위주의 사고가 팽배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최종 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그들의 의견을 문화와 창조에 반영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문화계와 산업계 등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소통의 문화’는 우리 건축계에서도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행태를 살펴보면, 우리 건축계는 아직도 자칭 타칭에 의한 사회적 개혁자 또는 개발 전문가의 위치를 고수하며 독아청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우리 건축계의 힘듦과 건축 작품의 질에 대한 문제를 ‘건축을 이해하지 못한 건축주 탓만으로 돌리고 있는 행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는 ‘건축을 이해하는 건축주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patron의 부재를 원망하고 자기의 원대한 뜻을 받아드리지 않은 사회에 모든 잘못을 돌리고 싶은 패자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내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런 험한 상황에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내가 전문가로서 최종소비자와 잠재 소비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를 살펴보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사실 오늘날의 건축계가 있기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회로부터 또는 제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덕에 이제는 설계와 시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과거와 현재의 온도차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더욱 어렵고 험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 또한 절실히 느껴야 한다. 그런 사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좋은 질의 건축을 제공했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건축인은 몇이나 될까?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그보다 더 기초적인 질문으로 양질의 건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축인은 얼마나 될까? 만약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소비자와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한 채 그들의 피상적 요구에만 대처한 것은 아닐까?

건축을 사회문화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소통해야 한다. 건축은 우리 사회의 환경이자 자산이며 문화로써 우리의 삶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건축문화를 만들어가 보자. 그러기 위해 소비자들이 건축문화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다가서 보자. 건축문화를 추구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건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하며, 건축주들의 기꺼운 동참을 유도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건축교육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과 교육을 위해서는 건축 관련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계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첫 졸업생 79명을 배출한 토요건축학교는 비록 거창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여는 큰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강생과 학부모들은 잠재적인 미래의 건축가 혹은 건축주가 될 것이며,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건축의 이해를 돕는 우군의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건축을 만드는 공급자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을 보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토요일에만 진행된 10회 동안의 강좌에 열심히 참여해 준 그들의 열의를 통해서 그러한 확신은 더욱 견고해졌다. 이 글을 통해 뜨겁게 호응해주신 모든 수강생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드리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한 젊은 건축사와 교수 등 모든 강사진과 staff들의 노력에도 힘찬 격려를 보내드리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이번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효원 교수와 김기준 운영위원 등 기획팀의 헌신에도 감사드리다. 그들의 노력이 광주 건축계의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헌신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린다. 더불어 몇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건축과 사회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려는 교육목표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광주의 지역성과 문화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주적 상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계되는 삶을 표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초등·중등·고등부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부산의 건축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던 상담과 강의 등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아시아 문화수도에서 건축의 역할과 건축전문가의 사명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건축학교를 통해서 건축을 창조하고 공급하는 전문가로부터 최종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건축 창조의 용광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개개의 전문가 및 건축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힘을 합한다면, 광주 건축계의 앞날을 밝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축계가 제한된 건축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스스로의 지평을 넓히는데 그 역량을 결집시켜줄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비록 바우하우스적 혁명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건축의 역할을 다른 예술적 장르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보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이 한정된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분야가 아니라, 모든 예술과 문화의 거울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건축계의 큰 숙제이고, 그를 통해 자신의 안목과 건축의 폭도 넓혀질 것이며, 문화예술계에서 본래의 건축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요건축학교 가을학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끝없는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 단 1 / 2 광 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 / 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2013 광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봄학기 수료식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주관, 초·중·고등학생 120여명 참가
-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간의 소중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마련해 가도록 해



▲지난 6월 22일 전남대학교 공학관 1층 영명홀에서 진행된 수료식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회장 : 정광민 건축가/서로 건축사사무소)가 주관한 2013 광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수료식이 지난 6월 22일 전남대학교 공학관 1층 영명홀에서 개최됐다.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원장 김광현.서울대 교수)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을 받아 처음으로 마련한 전국적인 학생 건축 교육이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전면 실시 된 주 5일제 수업과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교육 중요성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학교 밖에서 문화 예술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광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는 총 120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여 79명이 수료했다.

14주 동안 10회에 걸쳐 진행된 주요 교육내용들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건축을 통해 생활공간을 생각하고 강의와 답사 등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직접 제안해 봄으로서 학생이 지역 생활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간의 소중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마련해 가도록 했다. 강사로 참여한 건축가들은 한국건축가협회 건축 교육원 소속의 건축사. 건축학과 교수 등 교육과 실무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는 서울, 광주의 건축 전문가들이었다.

이날 수료식에서 정광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 집, 주변 도시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 졌는지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고 말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건축주가 되었을 때 도시의 건축물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많은 지도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신남수 교장 선생님, 건축교육원 김광현 원장님, 그리고 원활히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효원 교수님, 송명종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수료식에서 김광현 건축교육원 원장이 우수학생들에게 상장을 전달

이처럼 봄학기를 수료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축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덕초등학교 권재욱 학생(5학년)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오게 되었는데, 교육을 받는 주마다 재미가 있어 엄마에게 여름학기도 다니고 싶다고 조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덕중학교 권서영 학생(1학년)은 “멋진 여성 건축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대학에서 건축 전문가분들에게 직접 배우게 돼 더욱 흥미가 생겼다”고 밝혔으며, 아버지가 건축사라는 제일고등학교 박성모(2학년) 학생은 “아버지를 따라 멋진 건축사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건축에 대해 직접 배우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꿈다락 토요 건축학교를 신청하게 되었고, 간접적으로나마 건축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봄학기에 이어 여름학기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가협회 홈페이지(www.kiagb.or.kr) 또는 062-530-1999로 문의하면 된다.

2013 광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봄학기 작품 결과물

초등학생부

학교오는 길(박채연)

동물의 집, 사람의 집(정예담)

중학생부

우리 학교는 어떤 당에 놓여 있는가(김수현) 건축가와 함께 생활 속의 건축을 말하자(강승준)

고등학생부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1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2

초등학생부 교육진행

중학생부 교육진행

고등학생부 교육진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여름학기

접수 : 2013년 6월 17일(월) ~ 7월 20일(토)

- 기간 : 2013년 7월 27일(토) ~ 8월 17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소 : 서울(문화역서울 284 외), 부산(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외), 광주(전남대학교 외)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제 : “가족과 함께 걷고 배우는 우리가족 건축교실”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가족
- 운영방식 : 가족단위 신청이며 각 강좌마다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100명 기준)
- 문의
 - 서울 : (사)한국건축가협회 이수하 차장 02-744-8050, 02-741-1582, miso90@kia.or.kr
 - 부산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안현조 051-241-4011, kiabb@hanmail.net
 - 광주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송명종 062-530-1999, smj7687@nate.com

여름학기 일정

구분	날짜	주제	서울	부산	광주
1차	7월 27일	“자연을 찾아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공원	선유도공원	을숙도공원 에코센터	광주호 호수생태원
2차	8월 3일	“역사를 찾아서” 역사와 함께 공부하는 건축과 길	종묘, 북촌	부산근대역사 용두산공원	광주향교 광주공원
3차	8월 10일	“예술을 찾아서” 예술과 함께 즐기는 마을	문래예술공장	감천문화마을 전망대천안조각공원	중외공원 비엔날레전시관
4차	8월 17일	“기억의 현장을 찾아서” 기억이 스며 있는 장소	문화역서울284 서소문공원	유엔평화공원 부산박물관 문화회관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사직공원

4_ 설계경기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관리측면과 기능의 합리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상징성, 예술성을 갖춘 대한지적공사 무안군지사 사옥을 건립하고자 설계공모방식을 통하여 공모함.

심사위원 : 발주청 사정에 따라 비공개

발 주 처 :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 공모

대한지적공사 무안군지사 사옥건립 설계경기

위 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970-6
대지면적 : 1,099.00㎡
건축면적 : 267.75㎡
연 면 적 : 720.17㎡
건 폐 율 : 24.36%

용 적 륜 : 65.53%
규 모 : 지상 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알루미늄패널, 고밀도합성목재, 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 13대(장애인주차1대 포함)



당선작

강필서 건축사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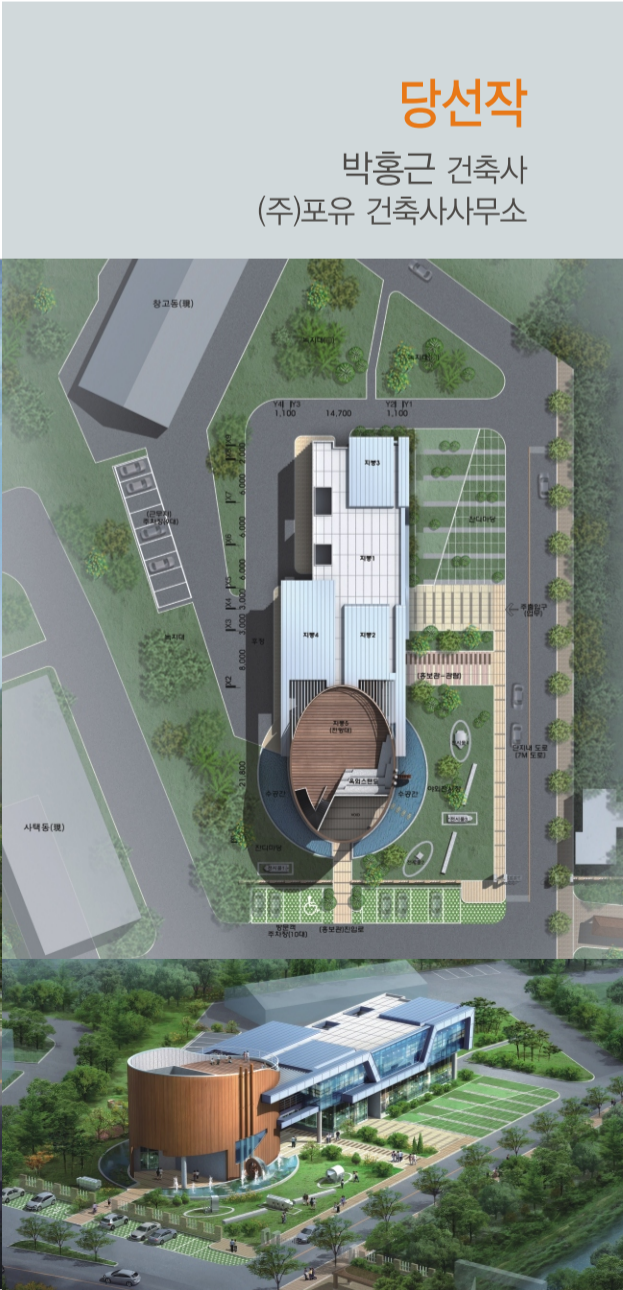
섬진강수력발전소 사옥 신축 설계경기

당선작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우수작 : (주)제이앤제이 건축사사무소 / 전태진, 최충천 건축사
가 작 :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용우 건축사 외 1개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 김경호 교수(강남대학교), 유희중 교수(호원대학교), 정재현 교수(경희대학교),
김정균(한수원자력 한빛본부 경영지원처), 김재림(한수원 수력양수본부 신재생사업실),
윤한섭(한수원 본사이전 추진센터), 장방배(한수원자력 여천양수발전소)

위 치 :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186번지
대지면적 : 7,404.00㎡
건축면적 : 694.90㎡
연 면 적 : 1,226.80㎡
건 폐 율 : 9.38%

용 적 륜 : 15.89%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고강도 목재패널, 화강석, 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 19대(장애인주차1대 포함)



당선작

박홍근 건축사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증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예술체험 시설 등을 연계한 증도 예술의 섬 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골고다 기독교미술관 건립을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얻기 위하여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을 공모함
심사위원 : 정금호 교수(전남대학교), 이세준 교수(호남대학교), 이재홍 교수(순천대학교), 신태양 교수(호남대학교), 김순철 교수(동신대학교), 남호현 교수(순천대학교), 박일재 교수(조선대학교), 정기석 교수(조선대학교), 조의현 교수(조선대학교)

골고다 기독교미술관 건축설계경기

위 치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584-11번지
대지면적 : 2,900.00㎡
건축면적 : 564.57㎡
연 면 적 : 992.31㎡
건 폐 율 : 19.47%

용 적 륜 : 31.45%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고밀도 목재패널, U-GLASS, 화강석
주차대수 : 8대(장애인주차1대 포함)

발주처 : 신안군 / 설계공모방식 : 제한경쟁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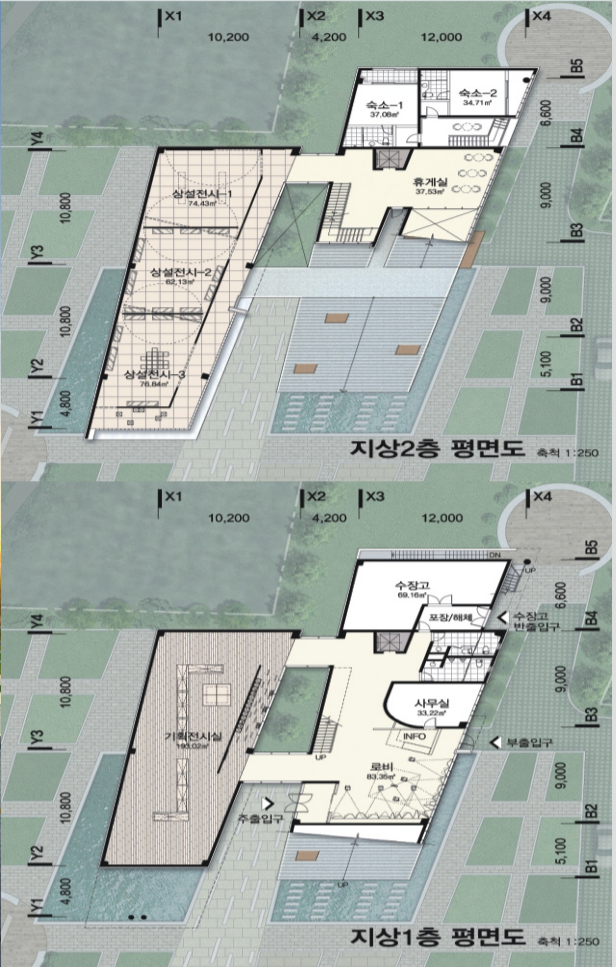
당선작

박동준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천사의 섬. 예술을 품다!

1004=ART=증도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공간, 그곳에 의미와 가치를 담아 예술을 만듭니다. 1004개의 섬, 대지전의 펼쳐진 아름다운 섬 마음 선안에 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한 층의 씨앗을 뿌립니다.



위 치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584-11번지
대지면적 : 2,900.00㎡
건축면적 : 576.62㎡
연 면 적 : 998.05㎡
건 폐 율 : 19.88%

용 적 륜 : 34.42%
규 모 : 지상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징크강판, FBD패널, 라임스톤
주차대수 : 10대(장애인주차1대 포함)

우수작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_ 1부

》 플로팅건축의 배경



문창호 교수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mchangho@kunsan.ac.kr

- 1부 : 플로팅건축의 배경 - 2013년 7월
1) 플로팅건축의 유래, 2) 플로팅건축의 필요성
2부 : 플로팅건축의 국내외 현황 - 2013년 8월 예정
1) 우리나라의 플로팅건축, 2) 유럽지역의 플로팅건축, 3) 미주지역의 플로팅건축
3부 : 플로팅건축의 전망 - 2013년 9월 예정
1) 각종 플로팅건축 제안, 2) 앞으로 플로팅건축의 방향

플로팅건축(부유식 합체 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향후 펼쳐질 수해양시대 건축 부문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에서 플로팅건축 분야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전북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의 원고를 2013년 7월호부터 9월호까지 총 3회에 걸쳐 게재코자 한다.

시작하며...

건물은 꼭 땅에만 지어야 하는가? 강이나 바다의 경우 매립하지 않고 물위에 건축하면 안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알맞은 건축유형으로 플로팅건축(floating building)이 부상하고 있다.

플로팅건축은 물위에 뜨는 부유식 시스템(합체) 상부에 지은 거주/업무를 위한 건물로서, 영구적인 위치에 계류되어 있으며, 항해를 위한 설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각종 전기/상하수도 등 서비스 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실 집을 물위에 띄워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으나, 인공 땅을 물위에 띄우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 글은 건축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플로팅건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플로팅건축의 배경, 플로팅건축의 국내외 현황, 플로팅건축의 전망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미국 유니온 호수에 조성된 플로팅주거단 (출처 : 필자 촬영)



▲네덜란드의 플로팅주거단지(출처 : 필자 촬영)

1. 플로팅건축의 배경

1) 플로팅건축의 유래

미국 서부지역 시애틀의 유니온 호수(Lake Union)에는 2012년 현재 약 500호의 플로팅주택에서 주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하고 있다. 이 플로팅주택은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에 등장하여 더 유명해졌다.

이 지역의 플로팅주택은 벌목장의 인부들이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다. 뗏목 위에 자투리 목재를 이용하여 조악한 1층짜리 목조주택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와서는 어부나 보트제작자 등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위한 본격적인 주택이 건립되었다.

1930년대 불황이 오자 싼 집을 찾는 수요가 많았는데, 허드레 통나무를 모아서 지은 저렴한 플로팅주택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당시 2,000호를 넘는 플로팅주택이 건립되어 운영되었다. 불황이 끝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플로팅주택을 떠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보헤미안(Bohemian) 대학생들로 주민이 대체되었다.

대학생은 재학 중에만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떠나기 때문에 플로팅주택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1950년대에는 지방정부가 이 주거단지를 슬럼으로 간주하여 철거 및 재개발을 추진하였고, 플로팅주택은 1,000여 호까지 감소하였다. 1960년대에 오면서 거주자들이 노력하여 협회도 결성하고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상하수도를 연결하는 등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후 플로팅주택에서의 독특한 생활은 시애틀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물에 의한 평화로운 환경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플로팅주택은 단층의 허름한 주택에서 점차 2층의 고급주택으로 재건축되고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방정부의 철거시책에 대항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매력적인 삶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들은 단합된 커뮤니티 의식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의 2/3가 해수면 이하에 있기 때문에 제방을 만들고 내부에는 운하가 발달하였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물에 친숙하였기 때문에 대지를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강이나 운하에 플로팅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현대에 오면서 연안의 정수역이나 운하 같은 곳에 플로팅주택이 많이 신축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유형이 되고 있다.

2) 플로팅건축의 필요성

(1)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가 그치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760명의 사망하는 홍수가 있었고, 2012년 8월 13일에는 군산에 4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올해 6월에는 폭우로 인하여 독일 다뉴브강 수위가 500년 만에 제일 높아져서 수만명이 대피했고 사망자도 수십명 발생했다.



▲독일의 홍수(출처 : 위싱턴포스트 2013.6.4.)

또한 해수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지역은 범람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방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처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제방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건축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종전의 물을 대함에 있어서 제방을 쌓고 완전하게 차단하는 방식(against water)보다는 차라리 물과 함께 하는 방식(with water)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일시적이나 꾸준히 강이나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위에 떠 있는 플로팅건축이나 평상시에는 땅에 닿아 있다가 홍수로 인하여 수위가 상승하면 떠오르는 플로터블건축(floatable building)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플로터블주택(출처 : 필자 촬영)

(2) 여가생활 및 힐링(healing)환경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생활을 산보다는 물에서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미개척분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마리나를 중심으로 수상레저가 시도되고 있다. 물을 본격적으로 즐기고자 할 때는 수변보다는 수상으로 다가가는 것이 최상이다. 플로팅주택, 플로팅호텔(펜션), 플로팅이벤트홀, 플로팅마리나, 플로팅레스토랑, 플로팅전시관 등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유니온 호수의 플로팅주택과 수상레저(출처 : 필자 촬영)

미국의 플로팅주거단지를 돌아보면서 주민들과 대화에서 힐링 환경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 플로팅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이웃사람이 좋아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등의 대답이 나왔다. 필자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플로팅주택에서 평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미국의 플로팅주거단지(출처 : 필자 촬영)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건축”은 건축주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적당한 질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 정창석 건축사

전북 전주시 ‘건축사사무소 예림’정창석 건축사(이하 정 건축사). 정 건축사를 만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양우현, 윤미순 편집위원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정 건축사는 작년 광주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가족합창제’에 전북지역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는 가벼운 인연의 인사말을 건넸다. 정 건축사의 인사말에 예술적 감각이 묻어나는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다음은 정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전주역사박물관

2000년도에 설계한 전주역사박물관 프로젝트의 성격이 전시시설이어서 무창의 덩어리를 만들기에 적합한 노출콘크리트 구조가 선택 되었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가장 크게 보이는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고 공간을 기획하여 작업을 마무리 한 작품

건축사로서 걸어오신 길 (학업 과정/설계입문 과정/개업 후 활동/기타 사항 등)

내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건축과에 바로 진학한 것이 아니라 공과대학에 입학해서 일 년간의 공통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진학하면서 전공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쉽게 취직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공과대학을 진학했다. 당시의 지도교수님이 고분자 화학에 가까운 섬유염색관련 전공이어서 섬유과에 오라는 말을 하셨지만, 평소 그리기를 좋아해서 건축과가 적성에 맞다고 판단하고, 건축과에 진학하게 됐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도 시공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다. 일관되게 설계만 집중했고 설계 분야로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군대에 가서도 설계병과를 받아서 줄곧 설계만 하였고, 제대 후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근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했다. 건축사면허를 취득하고 당해에 전주에 내려와 건축사사무소 예림을 개업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설계사무소에 처음 입사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도면을 지금도 고집스럽게 그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철학은?

건축에 대한 나의 생각은 건축주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적당한 질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축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축에는 동일성이 없다는 말에 공감을 한다.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 공간을 나누고, 적당한 재료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빛을 넣으므로 공간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때는 땅을 재대로 읽어야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땅공부를 하려고 쫓

아다닌 적도 있었다.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건축이 갖는 공간적 형태적 장소적인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건축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

건축사라는 직종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의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와 그 이유

묵묵히 건축사로서의 길을 걷는 삶은 존경받을 만하지 않을까. 룰모델이 되었던 건축사는 없었지만, 좋아했던 건축사는 1997년 인사동에서 청년작가 실험전을 함께 했던 조병수 선생이다. 재료의 물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건물의 열림과 닫힘을 표현하는 방식이 남달랐다.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

2010년에 전주 남성교회를 설계했을 때의 일이다. 공사의 과정에서 기존 교육관의 옥탑을 재구성하여 설계한 십자가탑이 재정적인 이유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돈이 들어가는 설계자의 의도를 끝까지 존중해 주었다.

사회봉사활동...

설계를 하는 일 외에 장로합창단에서 노래하면서 순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좀더 나이가 들면 재능기부도 생각하고 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거는 기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을 말하고,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건축사로서 앞으로의 계획

자신이 설계한 집은 시공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축은 도면과는 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한번 시공을 해보았다. 그리고는 다시는 시공을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하면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러다 최근에 주거공간과 커피숍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시공을 주관하면서 느끼 점은 시공자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너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도면으로 판단하여 설계만 하기보다는 현장과 병행하면서 하나라도 맘에 드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취재 :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 정리 : 객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 / 건축사사무소 예림 정창석 건축사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시의 정창석 건축사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 독자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인터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전여자중고등학교

1999년에 기전대학에서 중고등학교를 새롭게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기존학교를 매입하면서 시작된 작품으로 처음 발표를 준비하면서 맨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작품



▲소양 최씨 주택

2004년에 설계했던 완주 용진에 있는 주거와 음악실이 함께 있는 공간이다. 600여평의 대지에 배산의 지형으로 벼가 머리숙이는 가을이되면 정말로 자연의 축복을 마음껏 느끼는 집



▲전주대학교 공학관

2005년에 전주대에서 작업했던 몇 개의 작품 중 하나. 기존의 공학관의 증축공사로 학생들의 쉼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 공간의 채나눔을 통하여 공간을 조성한 작업



▲전주 남성교회

2010년에 완성된 건물이다. 역사를 가진 기존의 작은 교회가 필지를 하나씩 확보하여서 정형화 되지 못한 부지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본당을 신축한 교회로서 지형에 맞추어 부정형의 매스로 디자인을 하고 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동선을 해결한 예

흙과 건축 이야기_3부

» 한국의 현대적 흙건축



황혜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zederro@korea.com

1부 : 흙건축의 역사와 현황 – 2013년 5월
2부 : 흙건축의 효과와 구현방법 – 2013년 6월
3부 : 한국의 현대적 흙건축 – 2013년 7월

‘흙’은 과거시대 우리의 주거 생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축 재료였지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다소 비효율적인 건축 재료로 인식되었다. 친환경, 생태건축이 화두고 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다시 ‘흙’이라는 재료가 주목받게 되고, 현대화에 필요한 연구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본지에서는 2013년 5월호부터 7월호까지 3회에 걸쳐 국내 흙건축 분야의 권위자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황혜주 교수의 원고를 게재한다.

지금 한국에서 흙건축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 중 하나이며 흙을 이용한 건축재료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다. 이런 배경 속에 현재 한국 흙건축 분야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곳은 한국 흙건축 연구회(Terra Korea)와 국립목포대학교 흙건축 연구실(Architecture Community of Terra, 이하 ACT)이다.

-본문 중-



▲그림 1 고강도 흙블록으로 지어진 학교
(김제 지평선중·고등학교)



▲그림 2 고강도 흙블록 바닥포장



▲그림 3 흙콘크리트 타설모습



▲그림 4 흙콘크리트로 도로포장하는 모습

한국인에게 흙은 생명의 근원이고 죽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곳이었다. 단순히 주변 가까이 있는 건축 재료가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흙건축은 한국인에게 마음의 안식처이며 언젠가는 꼭 한 번 살아 보고 싶은 집이다. 흙을 재료로 사용한 건축에 대한 믿음은 한국인에게 확고하다. 한국은 오랜 흙건축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흙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전쟁과 1970년대 정부주도의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흙건축은 거의 사라져갔다. 1980년대 이후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흙건축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져서, 흙재료의 장점들이 사람들 사이에 다시 인식되었고, 특히 건강에 좋은 건축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지금 한국에서 흙건축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 중 하나이며 흙을 이용한 건축재료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다. 이런 배경 속에 현재 한국 흙건축 분야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곳은 한국 흙건축 연구회(Terra Korea)와 국립목포대학교 흙건축 연구실(Architecture Community of Terra, 이하 ACT)이다. 이 곳에서는 흙건축 교육, 연구, 개발, 전시, 사회봉사 등을 진행 해 오고 있으므로 이곳의 흙재료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의 한국 흙건축 기술 동향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흙건축은 고강도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고강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고강도 흙블록

고강도 흙블록은 無시멘트/無유기물/비소성(非燒成)의 3가지 원칙을 기초로 전통적인 흙과 석회의 포졸란(pozzolan)반응 원리로부터 물리적/화학적/기계적 방법을 이용해 만든다. 고강도 흙블록은 압축강도 30N/mm², 인장강도 5N/mm² 이상을 발휘하고 동결융해 저항성 등 내구성도 뛰어나다.

2) 흙콘크리트

흙 콘크리트는 시멘트 대신 흙과 고강도 석회로 이루어진 흙조성물을 사용한 것이다. 흙조성물은 고성능 흙블록과 동일한 반응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흙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뛰어나고 굳는 속도도 시멘트와 비슷해 콘크리트처럼 부어 사용 할 수 있다. 흙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21N/mm², 인장강도 4N/mm² 이상을 발휘하고, 내구성도 뛰어나다.

3) 흙다짐

흙다짐 공법은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들이 연구되었다. 일정한 크기의 흙다짐 벽체를 미리 제작해 블록처럼 하나씩 쌓아 올리는 프리캐스트 흙다짐(PC-Pise; precast rammed earth)과 흙에 고화재를 혼합해 다짐 시간을 줄이고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고강도 흙다짐(High-Pise; Stabilized Rammed Earth)가 연구되어 실용화 되었다.

4)흙미장

전통적인 흙미장은 흙의 종류에 따라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서, 균열이 없이 균질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미장을 반복해야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흙입자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품질이 균일한 건축재료로서의 흙미장재가 상용화 되었다. 이 흙미장재는 1-2cm의 두께를 한번에 시공할 수 있다.

고강도 흙블록과 흙 콘크리트는 실제 활발하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흙재료들은 새롭게 개발된 고화재를

활용해 흙재료의 성능을 높였으며, 색상, 디자인, 성능, 경제성 등에서 기존의 공업재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설재료로서 흙의 잠재 가능성이 확인된 연구이다.

특히, 흙블록은 건물 내외벽의 조적벽돌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 차가 지나는 차도와 주차장 같은 바닥블록에도 사용 되고 있고, 호안블록이나 옹벽블록 등 시멘트 콘크리트 2차 제품들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곳에 적용 되고 있다. 또한, 흙 콘크리트는 실제 건물에 적용되었고, 도로 포장에는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흙미장은 안정적인 품질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주택,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많은 흙건축이 실행되고 있지만, 건축 분야 전체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재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경제적 논리, 사회적 가치관, 기존 재료들과의 양립 문제 등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흙재료는 시기적으로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모든 사회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흙재료는 이미 지속가능한 요소를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흙재료가 시멘트 콘크리트와 같이 범용적으로 활용되며, 일반적인 건축재료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를 기대한다.



▲그림 5 흙다짐으로 지어진 미술관



▲그림 6 고강도 다짐으로 지어진 건물



▲그림 7 흙미장이 된 학교 내부(김제 지평선중·고등학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연재해주신 황혜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은 한 아이와도 같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_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 정금호 교수와의 인터뷰

무더위가 한창인 이 여름. 광주에서 전남 여수까지 2시간을 넘게 달려가 진행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 정금호 교수와의 인터뷰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한 가치가 있었다. 미래의 건축학도들을 양성하는 건축교육조직의 리더(학과장)로서 갖춰진 인품과 사상, 그리고 능력과 비전이 앞으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와 부흥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은 지난 7월 8일 진행한 정금호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어릴 적부터 건축에 대한 재미를 느껴...

전남 장흥 관산 출신으로 어릴 적 놀 거리가 부족한 시골마을에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두막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며 상상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화 되어 가는 과정에 매료되면서, 건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걸로 기억한다.

학자로서 걸어온 길...(학업 과정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학자이자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신남수 교수님께 수학하며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사실 너무 깐깐하고 완벽한 분이셔서 정말 어렵게 취득했던 걸로 기억한다. 학위 논문은 ‘계층화분석법을 이용한 주거선택의 중요도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로 다양성 개성화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주거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적 접근 내용이었다. 이후 계획의 근간이 되는 목표설정과 문제해결 우선순위 및 평가 방법론 모색과 의사결정에 대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연구해 나갔다. 건설교통부 시절에 국민임대주택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택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연구재단(당시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영국 사회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를 했다.

연구업적 또는 관심분야

서너 편의 컴퓨터 CAD 관련 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와 건축심리 및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통합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재해시장이나 농촌마을 공공공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도시설계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 요즘은 친환경 주택에 대한 것도 관심사이다.

학계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영국의 건설시장은 보험회사가 관리를 한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면들이 세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기술인 양성’을 넘어 ‘통합적 관리자적 기술인 양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고문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GDP 중 건설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서 8%로 축소되었다. 이의 축소에 따른 고부가 가치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집약적인 상황에서 기술집약으로 그리고 관리감독으로 단계적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춰졌으나 그에 걸맞은 디자인과 원천기술이

따라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학자로서의 철학에 대해

미적 수준이 높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움을 공유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영국에 이런 말이 있다.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공공재로서 아이와도 같다. 그 아이를 이쁘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듯 건축물 또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막노동꾼이 아닌 장인으로서 기술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의 장인정신을 예로 들어 말하면 벽돌 하나하나에도 세밀하게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시공을 한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시공 부분들이 시간에 쫓겨 급급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들이다.

기능, 구조는 있으나 미는 없다.

미국, 일본에서는 프리츠커 상을 받은 건축인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상을 받은 건축인이 없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건축의 기본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됐다. 뛰어난 기능과 구조 능력을 갖췄으나 디자인적인 면이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교육을 통해 찾게 될 것이라 보고, 심도 있는 디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건축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더욱 정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건축인 또는 제자들에게 당부 한마디

미쳐야 미친다(不狂不及)라는 말이 있다. 건축이란 머리뿐만 아니라 오감을 다 동원하여야 하는 학문이다. 다른 모든 분야와 같이 외우지 말고 느끼고 즐겨야만 하는 고되고 힘든 학문이다. 세계 어디에도 노력에 비해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축인들은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자부심을 느낄 뿐이다. 그리고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은 걸린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 또 한 가지는 여행도 다니고, 시도 읽고, 영화도 자주 보고, 다양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간을 느꼈으면 한다. 끝으로 유행에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한마디로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이다.

취재 정리 : 박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남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 정금호 교수

▣주요 관심 및 연구 분야

- 신재생에너지 녹색마을, 예코 하우스
- 여주시 Urban Design 및 공공 디자인
- 창조도시
- 주거(주거선택, 사회적 배제, 사회적 통합)
- 도시설계

▣연구 진행 중

- 전라남도 녹색마을 조성,
- 생태공원 조성,
- 영국 사회주택
- 여주시 재래시장 특성

▣주요경력

- 담양군 도시계획 위원(2004. 5)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 자문위원(2005. 7)
- 영국 뉴캐슬대학 방문교수(2007. 7 ~ 2008. 7)
- 여주시 건축위원(2009. 3) 여주시 기후보호
- 조형물 우수상 수상(2009. 12) 등 다수

▣주요논문

-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전통시장의 보행 만족도 분석(대한건축학회연합회 논문집 2012. 12)
- 농촌 오일장의 공간이용 실태에 관한연구 등 다수 (대한건축학회연합회 논문집 2011. 12)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과 소개

■ Dept. of Architecture ■ 전화 : 061) 659-7330 ■ 전남 여주시 대학로 50 ■ 팩스 : 061) 659-7339

가. 학과소개 및 교육목표

건축학은 인간을 위한 공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그리고 예술을 종합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전문직능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하여 국제 권고기준에 맞는 건축학과 교과과정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건축학과와 수업연한이 5년 과정으로 개편되었다. 교육학습 목표로는 건축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급속한 기술혁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거주 환경의 질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전문 건축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나. 건축학과 연혁

- 1997년 건축공학과 신설확정(여수대학교)
- 1998년 신입생 모집
- 2002년 건축학부로 확대 개편(건축공학전공/건축설계전공)
- 2006년 건축학과로 학과명칭변경(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
- 2007년 ~ 2013년 전라남도 미술대전(건축) 다수 수상
- 광주광역시 미술대전(건축) 다수 수상
- 2006년 ~ 2013년 국내외 건축물 투어 진행

다. 학과교수명단

성명	전공분야	성명	전공분야
조길환	도시계획및설계	정주성	건축계획및설계
김현태	건축계획및설계	정금호	건축계획및설계
박찬	건축의장및건축사		

(1)



(2)



(3)



(1)정금호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종종 해외 건축 답사를 다닌다고 한다. 올해도 일본 건축답사를 진행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의 여행 경비를 나누기도 했다는...

(2)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전통시장의 보행 만족도 분석 논문이 담겨 있는 대한건축학회연합회 논문집 2012. 12

(3)각종 세미나를 통해 지식기부도 하고 시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는 정금호 교수

건축 그리고 여행, 그 참을 수 없는 즐거움



▲일본국립서양미술관(1959년 르 꼬르뷔제 作)－일본현대건축 기행 中－

필자에게 얼마 전 손님이 찾아 왔다.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이 친구는 3년 동안 다니던 학교와 전공을 뒤로 하고 무작정 건축이 배우고 싶어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느 곳을 가야할지,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하여 필자는 한때 잠시나마 유학을 준비했던 내용과 지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알려 주었다. 덧붙여 건축에 대한 이론들과 나의 생각을 주저리주저리 그녀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것은 하얀 도화지에 무책임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를바 없을것 같아서 최대한 절제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고리타분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 보단, 우리나라 건축 혹은 세계 각국의 건축을 여행하며 눈과 마음으로 지각하는 과정을 토대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얻었으면 한다고 조심스런 조언을 해주었다.

여행은 인간의 생각과 삶까지 한 순간에 바꿔놓기도 한다. 과거 근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 꼬르뷔제는 24세 때 반년에 걸친 긴 여행을 나섰었다. 그가 후에 발표했던 ‘동방으로의 여행’을 보면 꼬르뷔제가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꼬르뷔제를 흠모 했던 안도 다다오는 여느 건축가들과는 달리 좋은 환경에서 수학 할 수 없었지만 여행을 통해 건축을 독학하며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하였다. 물론 두 건축가의 성장이 여행이라는 것으로만 국한 될 수 없지만 이들에게 한 단계 더 점진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단초중의 하나가 여행이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 필자와 상담했던 친구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행이 모두 끝난 후 재개 될 대화들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필자 또한 방학기간 동안 약 한달 간의 유럽여행을 계획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학했던 내용들이 Fiction 일지 아니면 Nonfiction일지 궁금하지 않는가? 건축학도들이여 떠나자!

지금 흘린 땀방울이 나중에 명함이 될 때까지...



2013년 여름... 동신대학교 재학생은 어느 해의 여름보다 더욱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하계 산업체 현장실습’이라는 타이틀에 미래에 자기 자신의 명함이 될 지도 모르는 꿈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신대학교 건축과 재학생의 일부는 광주·전남 지역 사무실과 현장에서 미리 현장을 경험하며 실습 중이다. 물론 어느 학교나 매년 하는 방학기간 현장실습 모습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비슷한 모습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기존의 현장실습은 학교에서의 정규적인 커리큘럼에서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라고 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필요와 강요에 의한 현장실습을 해 오지 않았나 싶다. 과연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실습의 큰 취지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왔었다. 그렇지만, 이번 동신대학교 실습을 이행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다르다!” 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자기 자신의 미래 명함이 될 꿈을 위해 자진하여 실습을 나가기를 희망했다. 지금쯤 우리 학생들은 각각의 현장과 사무실에서 적응하느라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설렘임이라는 ‘Bounce’를 가지며 배우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신대학교 재학생들은 어느 때의 하계방학보다 힘들지만, 더욱 뜨겁고 가장 알찬 시간들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그들을 지도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건축계의 선배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어설프고 미약하지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르쥬 루쓰의 공간 픽션 사진 전시회를 다녀오다.

내가 ‘루쓰’라는 인물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건축사진가 활동과 회화와 설치물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건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구조, 시공, 설계를 꼽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새로운 직종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건축 사진가이기도 하고 루쓰라는 인물은 여기에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직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건축은 종합예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폭넓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조르쥬 루쓰의 작업의 근간은 “아나모르포즈”라는 기법이라고 한다. “아나모르 포즈”란? 르네상스시대로부터 전해져온 회화 기법 중 하나로 원근법을 이용해 비뚤어진 화상 및 화상그리는 기법으로 대상의 가로,세로,경사진 것의 어느 한쪽만 이상하게 늘려놓은 상이나 볼록거울, 오목거울에 비친 상과 같이 특수한 방법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상하게 비뚤어진 영상을 말한다. 시각예술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론이라고 한다.

또 입구에는 “꿈”이라는 글자가 어느 한 시점에 도달해야지 보이게 되는데, 이는 루쓰가 즐겨 쓰는 문자 드로잉으로 모든 창작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꿈”이 모뉴멘탈한 글자가 되어 부재와 실재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한다. 루쓰의 작품들을 보면 절묘한 위치 선정과 구성 그리고 착시로 인한 효과가 돋보인다.



입구에서부터 직접 체험할 공간이 마련되어 다른 작품들도 절로 기대가 되었다. 내부 전시관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담당직원이 전체를 돌면서 작품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었기에 나도 그 틈에 끼어 작품 하나하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위 4가지 작품들은 조르쥬 루쓰가 버려진 건물이나 재건축될 위기에 놓여있던 건물의 내부에 색을 입혀 왜상이라 불리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에게 반영가능한 좋은 아이디어이자 실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루쓰가 작업한 사진은 마치 3차원의 공간에 2차원의 이미지를 합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공간의 벽이나 바닥 등에 칠해진 색이 임의의 한 점에 이르러 마치 또 다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왜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공간 속에 또 다른 제2의 공간을 창조하며 삼차원의 현실세계를 이차원 사진세계로 포착한 그의 사진은 관객들에게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평면작업인 사진에서 더 깊은 공간감과 원근감을 느끼며 루쓰가 장치해 놓은 시적 가상공간에 빠져들게 된다. “현실과 비현실”그리고 “비워짐과 채워짐”의 경계선에서 질문을 던지는 루쓰의 공간 작업들 또한 시간성과 관련해서는 “사라짐과 영원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3 광주도시재생투어 개최

— 지난 6월 21일,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 60여명 대구 지역 근대 골목길 답사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6월 21일 일반시민 및 건축사, 교수, 학생 등 60여명이 대구 지역 근대 골목길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주관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투어는 광주 도시재생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광주 도시재생의 발전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광주역에서 출발하여 대구 중구 지역 ‘대구 선교사 주택’, ‘3.1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서상돈 고택’, ‘대구 근대역사관’, ‘경상감영’, ‘근대주거지역’ 등지를 답사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대구골목투어는 대구 중구청에서 전국 처음으로 특허청에 업무표장과 상표등록을 완료한 골목길 브랜드이기도 하다.

한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올해 10월 말쯤 제2차 도시재생투어로 전라북도 군산 근대거리 답사를 진행할 계획임에 따라 관심 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답사기

최형필 학생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대구 근대골목길 재생투어’를 다녀와서

사람은 장소에 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가령 다녔던 초등학교 골목길을 지날 때면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그리움에 빠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대구 골목길투어는 그러한 장소에 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투어가 아니었던가 싶다. 투어는 다정다감했던 아줌마 해설사님의 안내로 동산의료원에서 시작했다. 선교사주택을 개조한 의료선교박물관에서는 신기한 근대의료기구와 함께 의료선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서양적인 붉은 벽돌의 외벽과 한식 기와지붕이 어우러진 독특한 외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3·1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역사적 장소에서는 선열들의 뜻을 상기하며 참가자 전원이 만세 3창을 했는데, 씩스럽기도 했지만 가슴 뭉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청라언덕에서는 ‘동무생각’을 합창하며 그곳의 역사와 문화의 감흥을 온 몸으로 느꼈다.

이어서 대구의 90계단과 쌈지공원을 거쳐 계산성당으로 이동했다. 대구의 계산성당은 서울의 명동성당 그리고 전주의 전동성당과 함께 대표적인 근대성당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고딕양식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맛보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결혼식에 관한 에피소드도 들을 수 있었다.

몇 걸음을 옮겨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의 생애 마지막 고택도 둘러보았고, 일제강점기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 선생의 고택도 둘러보았다.

안타깝다고 해야 되는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화 선생의 고택과 서상돈 선생의 고택은 개발논리에 밀려 고층 건물로 에워싸인 채 고립무원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하주차장의 환풍기가 고택 코앞에 버티고 있는 것도 씁쓸했고, 복원된 고택의 지붕에 한식기와가 사용되지 않은 것도 이상했다. 건축학도로서 많은 생각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아쉬움을 달래며 한약 내음이 진동하는 약령시를 지나 진골목에 접어들었다.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좁다란 골목에 맞닿은 고가와 돌담 등에는 옛 정취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진골목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정소아과는 대구 최초의 2층 양옥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상류층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근대건축물이라고 하며,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그곳 진골목의 상가와 사람들의 모습에서 옛 정취를 되살리고 보존하며 활용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그 도시의 자산이고 품격임을 깨달았다.

투어는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축되어 해방 후에는 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된 바 있는 대구근대역사관을 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먼 거리를 달려가 낯선 곳에서 짧은 시간동안 수박겉핥기처럼 진행된 투어였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대한민국은 항상 공사 중이다.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깃든 장소들은 수없이 사라져 갔고, 사라지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까닭에 나 또한 ‘도시재생이란 고층아파트단지로의 재개발’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구근대골목길투어는 착각 속에 갇혀있던 나의 잘못된 인식을 와장창 깨어주었다. 더불어 역사성, 지역성, 장소성, 다양성 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건축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광주도 옛 기차길이라든가 수피아여고와 기독교병원에 있는 근대건축물, 5.18정신이 묻어 있는 도청건물 그밖에도 수많은 기억들을 담고 있는 장소와 건축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가꾸면 어떨까하는 하는 생각과 아쉬움이 맴돌았다. 부디 다음에는 내 고향 광주에서도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광주투어를 떠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주거학회와 광주전남건축학회 도시재생 세미나 연달아 개최해

— 주거학회, 6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건축학회, 7월 10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주거학회세미나



▲건축학회세미나

광주광역시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 세미나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사)한국주거학회는 지난 6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소형주거 도시재생에서의 수용가능성”이란 주제로 광주 도시재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거학회 세미나는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김중헌 교수의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도시재생’과 자담건설 류현수 대표의 ‘소규모 공동체주택과 주거지 재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훈 교수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 재생’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용준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 또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0일에는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도심재생 기획 세미나가 개최됐다. 광주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근대 유적을 활용한 광주 도심재생 방안”이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한승훈 교수의 ‘광주의 근대유적 분포와 그 특성’과 목원대 건축학과 김정동 교수의 ‘근대도시, 근대건축, 대전 소재동 근대유산 활용 방안’, 성균관대 건축학과 윤인석 교수의 ‘외국의 도심 근대유적 활용사례-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용준 회장, 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가 참석하여 광주 도심 재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실적인 도심재생 방안을 모색하여 시책에 도입코자 각종 세미나 및 공모전을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2013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나무심는 건축인 주관, 광주시 소재 대상물, 참가자격 제한 없고 7월 19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와 나무심는 건축인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장려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까지 제8회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대상 작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요내용>

1. 시상분야 : 3점 이내(시각부분, 공간부분)
2. 시상내용 : 광주광역시장상 및 기념동패
3. 접수기간 : 2013년 7월 5일 (금) ~7월 19일 (금)
4.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상물
—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공개공지, 담장, 가로 및 쌈지공원, 벽면 및 옥상녹화, APT 등
5. 참가자격 : 제한없음
6. 작품 제출내용 : A3 규격 내에 설명서 장소, 사진포함 5매 이내
7. 작품 제출장소 :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번지 골든빌 310호
나무심는 건축인(우편접수가능)
8. 문 의 처 : 나무심는 건축인 (TEL.062-373-3131)
9. 전시일정 : 2013년 11월 3일(일) ~11월 6(수)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실
10. 시 상 : 2013년 11월 중

광주시, “2013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 9월 27일까지 등록 / 총상금 1,200여 만원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 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미래지향적인 건축 및 도시재생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아이디어 공모분야
 - 현지개량방식의 창조마을, 희망만들기 사업,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낙후된 구 도심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방안, 학교, 공장 등 이전적지 및 유휴지 활용방안,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점목사업 등 다수
2. 시상 - 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특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10점) : 상장 및 기념품,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3. 등록 : 2013년 6월 12일부터 9월 27일
4. 작품접수 :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5. 작품제출 규정 : A4 1매
6. 작품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우)500-876
7. 문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26 / E-mail : gjkira@empal.com



나라장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1005) 관련 변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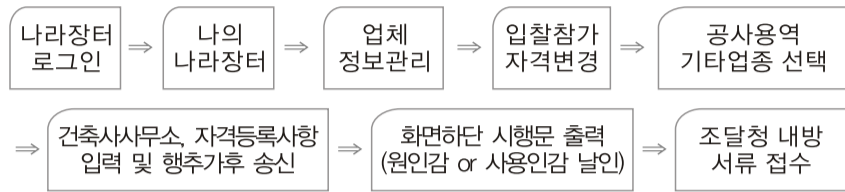
－ 오는 7월 31일까지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로 변경해야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 자격등록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기존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1005) 업종은 삭제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기존 업종코드 1005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업종코드 4817로 변경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 대 상 : 기존 업종코드 1005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변경등록기간 : 7월 31일까지
- － 변경 코 드 :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
- － 문 의 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라장터 사이트 내 업종코드 변경 방법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실시

－ 1급 모든 건축물의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2급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만 평가가능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이 필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연면적 500㎡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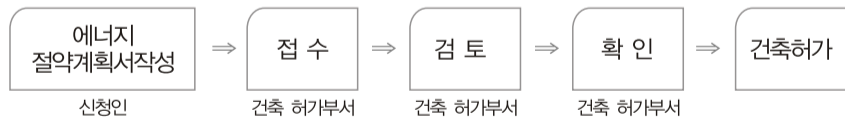
－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 고시 제 2013-141호)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외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다.

제출시기는 건축허가시 신청하며,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 1부 이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본부(031-260-4114), 광주전남지역본부(062-223-2360~1), 전북지역본부 (063-212-7082)로 문의하면 된다.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사이버 강의 개설 안내

－ 7월 2일부터 4과목 사이버강좌 오픈,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 신청(www.kiraeb.or.kr)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은 지난 7월 2일부터 사이버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 수강신청을 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과목당 정회원은 1만원, 비회원은 2만원 수강료를 납부하면 된다.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강료	
개설과목명	강사	정회원	비회원
친환경 건축을 위한 고효율 단열	권영철 교수 한라대학교	10,000원	20,000원
생태환경과 조경	이애란상무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원	20,000원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및 적용	김인순 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10,000원	20,000원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 이해와 실례	김학건 대표 (주)친환경계획그룹 청연	10,000원	20,000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발표 및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공고

－예비시험 합격률 30.3%. 건축사시험 7월 17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통해 접수

2013년도 건축사 예비시험에서 모두 132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30.3%였으며 전체 합격자 중에서 여성이 293명(29.2%)으로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실시한 2013년도 건축사 예비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5일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4364명이 응시한 가운데 1322명이 합격해 30.3%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합격률 23.2%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여성합격자는 총 293명으로 합격자의 29.2%를 차지해 지난해 21.8%보다 대폭 늘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설계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축사 자격시험은 오는 9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예비시험 합격자’ 또는 ‘인증된 대학 건축학과 5년제 졸업자로서 실무수련 3년을 쌓은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7월 17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다.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산업유산 창작벨트’ 개관

－옛 조선은행 등 5개 건물예술문화공간 탈바꿈,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재생 모범사례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난 6월 28일 근대역사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 군산시립예술단의 뮤지컬 ‘판타스틱’ 공연과 불꽃퍼레이드, 시민노래자랑이 펼쳐졌으며 기념행사로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한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Festival 축제’도 진행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총 105억 원이 투자되는‘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는 내항에 위치한 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등 근대건축물 5개동을 보수해 새로운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이다.

군산시가 정비한 구)조선은행, 구)일본제18은행, 미즈카페, 장미공연장, 장미갤러리는 주변에 있는 진포해양테마공원(2010년 8월 개원), 근대역사박물관(2011년 9월 개관)과 연계해 내항일원을 하나의 근대문화벨트지구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군산시 월명동에 조성 중인 근대역사 체험공간과 맛의 거리가 연 내 완료되고, 탐방로가 내년에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근대역사문화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건축사회, 전주완주 통합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했으나...

－지난 6월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가져, 완주군 주민투표결과 통합 무산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6월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완주 통합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책임있는 우리 사회의 과업”이라며 “우리 건축사회는 전주완주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 “완주 군민 모두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6일 진행된 "완주군 주민투표(사전투표 포함) 결과 전체 투표권자 6만9천381명 중 3만6천933명이 참여 53.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유효투표자의 55%(2만343표)가 반대, 찬성은 44.4%, 무효는 0.4%로 집계돼 전주완주 통합이 아쉽게 무산됐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동방신기 유노윤호

－ 이 지역 출신 한류스타, 로고송 부르는 보아와 명예홍보대사로 활동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명예홍보대사에 광주 출신 한류스타 유노윤호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국내외에 알릴 명예홍보대사에 광주 지역 출신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운호)를 위촉했다고 지난 7월 2일 밝혔다. 재단 측 지난 10여 년 간 디자인의 한류를 선도해 온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이미지와 대중문화 한류의 중심에 선 유노윤호의 이미지가 부합하다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로고송을 부르는 보아와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할 유노윤호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두 스타의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거시기, 머시기’를 주제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59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며, 유노윤호의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은 오는 9월 5일 개막식 때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 목포지역 건축사회, 회원 단합 워크숍 개최

－ 소속 회원 25명,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서 건축기행 및 세미나 가져



전남건축사회 목포지역 건축사 회원 25명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원 단합과 건축기행을 진행했다. 또한 제주대학교 박철민 교수를 초청하여 ‘자연 친화적 건축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자연, 건축, 도시’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2013년도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실무 교육 안내

■광주건축사회		
1)교육기간 : 2013. 7. 13 (토) / 7. 20 (토)		
2)교육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3)교육일정		
※1기당 신청 가능 인원 : 66인 이내		
구 분	4기	5기
	7.13 (토)	7.20 (토)
1교시(13:00~13:55)	시대변화에 따른 건축정책과 법령정보 / 조한권(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장)	
2교시(14:00~14:55)	친환경 건축설계 및 에너지절약설계 / 이아영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3교시(15:00~15:55)	건축설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활용 / 오세규(전남대학교 교수)	
4교시(16:00~16:55)	내진설계와 시뮬레이션 / 이강석(전남대학교 교수)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시 광산구 광산로 32 (2층)
 - 허창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영
광주시 동구 산수동 538-8
- * 변경(소재지)**
 - 조준호 건축사 / 일호 건축사사무소
광주시 북구 대전호 124-7, 5층(문흥동)
 - 최승민 건축사 / 대진 건축사사무소
광주시 서구 월산로 218-0 2층(농성동)
 - 송완근 건축사 / 대웅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시 서구 하남대로 668-0(동천동)
- * 결혼**
 - 박재홍 건축사 / 한라 건축사사무소
7월 13일 (토) 11:00 / 장녀 결혼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2층 무궁화홀
- * 부고**
 - 박형갑 건축사 / 토형 건축사사무소
7월 9일 (화) / 부친상

News 전남 건축사회 동정

- * 재입회**
 - 정충기 건축사 / 대길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내동길 10-8
- * 변경**
 - 장진영 건축사 / ㈜디딤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나주로 160-0 (4층)

News 광주·전남·전북 7월지역축제안내

- ▶19 (금) ~ 07. 21 (일)까지 제23회 완주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 ▶20 (토) ~ 07. 21 (일)까지 2013 무주구천동 계곡축제
- ▶24 (수) ~ 07. 28 (일)까지 2013 무안연꽃축제
- ▶23 (화) ~ 07. 28 (일)까지 제13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 ▶26 (금) ~ 08. 01 (일)까지 2013 정남진 장흥 물축제
- ▶27 (토) ~ 07. 28 (일)까지 제15회 전주영동 북송야 콘잔치
- ▶27 (토) ~ 08. 04 (일)까지 제41회 강진청자축제

News 전북 건축사회 동정

- * 재입회**
 - 강선중 건축사 / (주)미추홀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3길 3-4(중화산동2가 761-11)
- * 전입**
 - 오재영 건축사 / 방주 건축사사무소
익산시 익산대로 210(남중동 484-6 201호)
- * 변경(소재지 변경)**
 - 박현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빛
전주시 완산구 배학4길 39(효자동3가 1686-6)
 - 배성기 건축사 / 기단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관삼도로 379(덕진동1가 1314-120)
 - 안광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하우
전주시 덕진구 관삼도로 379(덕진동1가 1314-120)
 - 임성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현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6-11(중화산동2가 653-6)
- * 변경(상호 변경)**
 - 김경옥 건축사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목양 건축사사무소
 - 이영운 건축사 / RED장수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녹
- * 변경(상호, 소재지 변경)**
 - 김중원 건축사 / 아진 건축사사무소
⇒ 마을 건축사사무소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한방약초센터 2층)
방인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녹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익산시 인북로 234(남중동 60-70)
 - 이성열 건축사 / 중원 건축사사무소
⇒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 전주시 완산구 배학4길 39(효자동3가 1686-6)
 - 조영철 건축사 / 모양 건축사사무소
⇒ (유)모양 건축사사무소
/ 정읍시 서부로 16(연지동 253-13)
- * 부고**
 - 권중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일건설턴트
6월 26일 (수) / 부친상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 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힘
- －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টে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임.
- －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 －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 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 － 세대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 배치 등이 포함
- －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됨
- －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 －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전부개정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 녹색건축 인증규칙 및 인증기준 주요내용
- 가. (법령형식 변경)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과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
- 나.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확대)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취득 기준을 확대하여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도모(규칙 제13조, 고시 제8조)
- * 연면적 1만㎡이상 공공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 공공건축물
- * 진행중인 건축행위를 감안하여 '13.9.1부터 시행 (규칙 부칙 제3조)
- 다.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환경부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규칙 제5조)
- 라. (전문분야 분류체계 재정립) 종전 9개 전문분야의 분류체계에서 유사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 재정립(규칙 제4조제4항)
- * (9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방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7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마. (특수가점 근거 신설)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 마련(규칙 제8조)
- * 본 개정령에는 가산점 부여 근거만 신설하고, 세부 절차 및 가산점 부여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고시 개정 추진 예정
- 바. (인증서 및 인증명판 변경)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하여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진, 국회의원, 김남중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중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릴적부터 갖게된 꿈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예비 건축인들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장 철 동일교역(주)	900,000원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350,000원
광주건축사신탁	350,000원
조도연, 이경환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3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소유한다는 것

어제 아침 사무실에 출근을 하니 매장 정면 유리가 짝 금이 가 있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군가 돌을 던져 고의로 깬 것 같았다. 자국이 선명했다. 순간 화가 나고 매우 불쾌했다. ‘아우, 또 돈 날아가네.’ 하며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본다. 누가 깬을까? 하는 아무 부질없는 추측들이 머릿속에 난무한다.

우리 건물을 바라보았다. 유리가 많아서 투명하고 확 트여서 좋았는데 이런 문제도발생하는구나.. 땅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며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밝혀서 정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마음을 접었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내 것이 되려면 되겠지.’ 하는 욕심이 떠나질 않았다. 그러던 중 사고치기 좋아하는 남편이 드디어 대형 사고를 치자고 했다.

물론 나도 공모자(?)가 되었다. 항상 사고는 남편이 치고 사고 후 수습은 나의 몫인데... 땅을 계약하고 등기이전하고 곧바로 건물을 짓자는 것이었다. 마치 무슨 각본에 있는 것처럼...

그 각본대로 1년 동안 힘들게 건물을 지었다. 수차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냉정과 열정을 오가며...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 건물! 남들은 언제 완성되느냐고 더 안달이다. 그렇지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하다.

할 일도 많고 정리할 것들 천지지만 일단은 저지르고 적응하는데 익숙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자극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겠지...

유리 한 장 깨졌지만,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책임감과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번 느낀다. 안주하지 말고 달려야 하는 의무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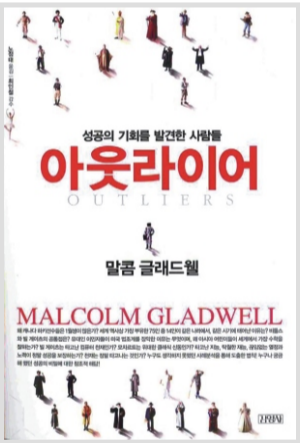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웰 저/ 김영사/ 2013. 02. 12 1판

백재봉 건축사

백 건축사사무소



아웃라이어란?

1.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따로 분류되어 있는 물건

2. 표본 중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치

‘아웃라이어’가 21세기 한국 사회에 던지는 도전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자기 분야에

서 최소한 1만 시간 동안 노력한다면 누구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만 시간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시간씩 연습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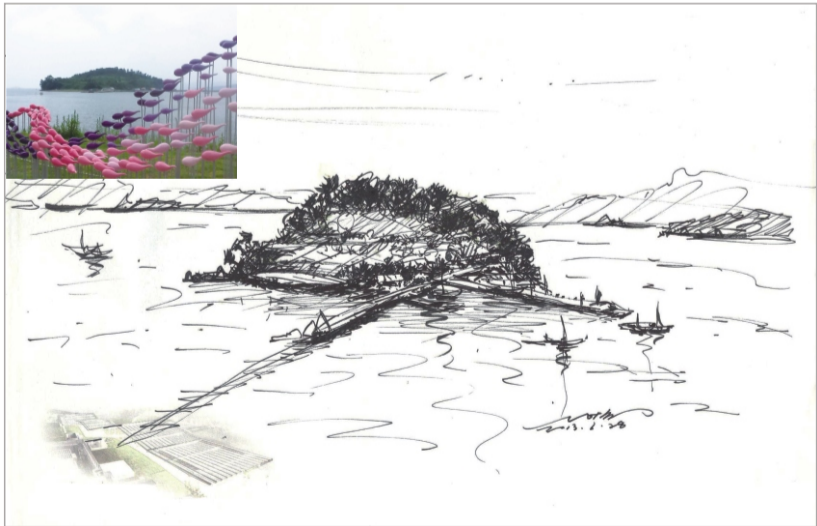
1만 시간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뇌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 글래드웰은 우리가 성공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 얽매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정상에 오른다는 신화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즉 아웃라이어를 논할 때 그 사람의 지능을 가장 궁금해 한다. 이 신화에 따라 사회는 사람들의 IQ를 측정하고 그에 의거해 사람들을 선별하고 차별한다. 그러나 글래드웰에 따르면 아웃라이어가 되는데 필요한 제1 요인은 천재적 재능이 아니라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쉼 없는 노력이다.

둘째, 기업을 경영하는 CEO의 경우 직원들에게, 아

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자녀들에게 후천적 재능과 가능성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한다. 짧은 시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1만 시간의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릴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일이나 공부에서 보람과 가치, 재미와 의미를 느끼고 1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들은 분명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21세기 아웃라이어로 거듭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웃라이어’는 한국 사회를 향해 노벨상의 업적을 만들어 낼 천재를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유산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한다. 아웃라이어의 출현만을 꿈꾸지 말고, 한국 사회 자체가 아웃라이어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아웃라이어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이다.



여수

예울마루 앞에 가면 섬이 있다. 물이 들면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섬. 섬은 마치 고향과 같다. 고향을 가는 길은 조금 불편하지만 설렘과 향수가 있다. 지금 바라다보는 저 섬이 그냥 오래도록 고향처럼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장도는 여수 예울마루 앞에 있는 섬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다리로 연결하는 문제로 논란에 있다한다.)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에이디그룹(광주)

촬영지: 그리스 올림피아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거친 질감의 차도는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한다. 인도와 차도의 심리적인 경계만 있을뿐 비슷한 패턴과 높이에 하나가 된 가로공간은 양측 보행자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며 인간 스케일에 어울리는 건축과 연계되어 사람을 중심에 둔 장소로서 가로 공간에 여유로움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동네의 거리도 차량 이동이 목적이 아닌 보행자행위 중심의 가로공간으로 바꾸어 가야하지 않을까?

정 영법 건축사기자/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전남)

건축문화사랑과 함께한 제2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 광주건축사회가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일본 북해도 지역 건축물 탐방,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
- 일반시민 등 20여명 참석하여, 일본의 선진 건축문화를 접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일본 북해도 구도청사에서 기념촬영



▲일본 북해도 태양 유치원에서

2013 제2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해외 건축 문화탐방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됐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주관한 이번 건축문화 포럼은 일반시민을 비롯한 건축사, 교수 공무원,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일본 북해도 지역 건축물을 답사했다.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북해도 투어단은 북해도 치토세와 삿포로, 노보리벡트 도야 지역 등을 답사하며 일본의 건축문화를 접했다.

3박 4일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의 총괄진행으로 오타루 운하, 오르골 전시장, 구 홋카이도 청사, 오오도리공원, 지옥계곡, 지다이무라, 소화신산, 사이로 전망대, 도야호수, 태양유치원 등을 둘러봤다.

이번 건축문화포럼에 참가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최광희 계장은 “이의 자리를 통해 일반시민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 선진지 건축문화를 접하며, 우리 지역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향후 추진될 건축문화포럼에도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주관으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광주 건축문화포럼은 연3회로 국내 건축물 답사와 해외 건축물 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국내투어를 진행할 계획임에 따라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래본다.

<북해도 건축문화탐방기 I>

박시완 사원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색다른 일본의 홋카이도 탐방

자연과 소통이라는 말이 무서울 정도로 광주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나 다르진 않을 것이다.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가 눈 앞의 모습을 현저히 바꿔 놓는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삿포로 일본의 땅 치토세를 밟았다. 처음 눈앞의 펼쳐진 일본의 모습은 그토록 깔끔할 수는 없을 정도였다. 일행을 기다리며 시야를 넓혀보면 손에든 작은 휴지 조각조차 지나가는 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내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다른 사람의 모습보단 내 자신이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부끄러움을 잠시 감추고 운하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매력 넘치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오타루를 물색한다. 영화를 참 좋아하는 내게 ‘러브레터’ 배경의 장소에서 오래된 역사의 흔적들과 간직하려는 노력들이 밝고 잔잔하게 전해져 왔다.

조그마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그들의 모습을 작은 렌즈에 담아내느라 쉴 틈이 없었다. 헛기침 하며 주름 가득한 손으로 작은 도화지에 그려내는 이름모를 화가의 모습에서 렌즈와는 전혀 다른 여운이 느껴진다.

오타루의 시간도 잠시, 홋카이도에서 가장 가고자했던 그곳. 도시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밤이 어느 나라와 다름없게 없는 시골시골한 모습, 광대한 자연과 독특한 풍경이 빚어내는 도시 삿포로. 동경이나 오사카와는 또 다른 일본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도시이다.

‘건조하고 광대한 땅’이라 불리는 만큼 어른, 아이 따지지 않고 오오도리의 넓은 공원에 앉아 일상의 지치지 않은 밝은 모습들이 한가득 하다. 도시 속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도시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오오도리공원 뿐만이 아니었다.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모던한 건축물로 ‘붉은 벽돌의 도청’이라는 애칭으로 삿포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기도 한 구도청사. 미국식 네오바로크 양식의 벽돌 건물로 당시, 미국에서는 독립과 진취의 상징으로서 돔 건축양식이 유행 했다. 개화기 초의 건물들은 거의 붉은 벽돌의 돔으로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무렵 양식은 미국의 독립과 개혁의 상징을 모델로 많이 건축되었다.

약 250만개나 되는 벽돌을 감상하다보면 구 홋카이도 청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조그마한 연못 사이로 웅장한 그림들을 만들어 내는 풍경을 지켜보다 넋을 잃곤 했다.

잠깐의 시간동안 일본의 부분적인 장면들을 지켜 볼 때마다 아쉬움이 크다. 삶이 숨 쉬는 도시는 비슷하나, 도시적 안식처와 자연과 소통하거나 삶이 소통하는 장소, 무심코 지나가버리는 개인의 습관들이 눈앞의 현실을 놓쳐버리지는 않는지 내 자신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왔다.

<북해도 건축문화탐방기 II>

안선영 대리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묻는다. 답한다. 기억한다.

오타루 운하는 다이세이 시대에 만들어진 곳으로 당시 운하사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창고를 개조한 레스토랑으로 거듭나 현 시대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연인들과 작품 활동을 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다음날, 한 유치원을 방문했다. 태양을 모티브로 한 건축주의 스케치 한 장으로 설계 되어진 이 유치원은 중앙 잔디정원을 중심으로 빙 둘러 크게 두 채로, 작게는 세 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재난 시 아이들이 쉽게 중앙 잔디정원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에선 보기 드문 넓은 중앙 정원에서 뛰놀며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꾸길 바라는 원장님의 바람은 건축설계라는 물리적인 방법과 조화를 이루어 아이들의 꿈을 그리는 도화지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건축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를 다시 한 번 느낀다.

그 후, 삿포로 구 도청사, 삿포로 팩토리, 북해도 개척마을, 일본의 민속촌이라 불리우는 지다이무라까지. 역사적 의미를 갖는, 또는 구원해 놓은 장소와 여러 건축물들을 답사하면서 과거의 공간이 현 시대인들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상가로, 전시장, 공연장으로, 또는 교육장으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찾고 있으며, 이용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았다.

개발에 급급해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거나, 또는 기능을 잃어버린 역사적 흔적들을 그대로 방치 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현 시대인들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도록, 현재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여 우리의 삶과 같이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013년 7월, 일본 북해도 땅 위에 서서 물었다. 내가 서있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건축물이 답했다. 그리고 난 기억한다. 음성으로 문서로 설명을 접하지 않아도 도시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서를.

끝으로,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는 일은 나에게겐 언제나 즐겁고 벅찬 일이다. 이 벅찬 여행을 20명의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관해 주신 광주건축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고마운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북해도 건축물 사진/촬영 : 곽승국 전담기자



오타루 운하



오르골 공방



삿포로 팩토리



삿포로 구도청사



태양유치원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저희 동일교역에서는 고밀도 목재패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LW PANEL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도, 명도, 해상도 등 표면의 색감이 고급스럽고 편칭메탈의 문제점인 오염과 평탄성 저하, 변색 등 성능 저하가 거의없으며,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주며, 항상 새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한의 환경과 오염에도 변색과 변질없는 내구성과 탁월한 유지 보수성을 지녔고 정교한 평탄성과 디자인성, 마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LW는 해외 및 국내 경쟁 사들의 롤모델이며 로망인 제품입니다. 수 많은경쟁 제품들이 현재도 실험적으로 출시하지만, 탈색과 변질..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택스ARUA PANEL(내부심지에 알루미늄층이 들어간 제품으로 모방과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품질을 견줄 만한 제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입품 조차 이태리,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제품들.. 모두를 비교하여도 2012년 현재까지 젠택스ARUA의 독보적 품질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널 겉모양은 똑같거나 더 화려한 제품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공을 할경우에 따른 문제점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동일교역은 고밀도 목재패널이 아닌 알루미늄심지”가 압축된 젠택스ARUA PANEL 제품입니다.

고밀도 목재패널 하자사진자료(실제사진입니다)



주력제품 : FBD PANEL

-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공사례사진



시공사례사진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